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SPEAKER : 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세계관동역회에서는 임원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타 기관의 두 단체장을 통해 세계관동역회가 지금까지의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고자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IVF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이강일 소장의 발제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다음 호에는 이어서 청어람 ARMC 양희송 대표의 발제 및 대담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월호] 이강일 _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와 추이

[2월호] 양희송 _ 기독교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

이강일(이하 이) 언젠가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대학시절에 책에서 봤던 저자 분들을 여기서 직접 뵈게 되었네요. 이렇게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인식을 말하기 전에, 편의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1,2,3세대로 나누어 세계관운동을 시

작한 지금의 세계관동역회 세대를 1세대로, 그리고 그 1세대의 저서를 읽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저의 세대를 2세대, 지금 현재의 젊은 다음세대로 1세대를 비판하는 3세대로 세대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왜 세계관동역회의 세계관운동이 3세대에게 비판을 받는가?’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 약 25년을 이십대 대상으로 사역을 하며 1세대 선배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있다가 지금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복음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쓴 제 논문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기독지성운동의 일환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전개 과정에서 기독지성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 하는데 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개념이 워낙 큼니다. 그 기원을 정리하면,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의 경건주의에서부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비주류에 속한 초교파적 성격에, 자발적인 성향을 띠니다. 돈은 없고 신앙은 뜨거운 자체적으로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파 운동을 ‘소사이어티(society)’라 하더군요. 이 흐름이 영미권에서 대중화된 시점이 19세기 대각성운동이라 볼 수 있죠. 웨슬리 운동, 성결운동 등 미청교도가 부흥한 양상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 베빙턴(David Bebbington)이 복음주의를 회심, 성경, 십자가중심, 행동의 네 가지 키워드로 정의했고요. 현대에서는 오순절 운동의 성령운동, 공동체 중심의 재세례평화주의, 기독지성과 환경, 생태계 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모더니티의 근대성과 만나며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로 분화되어 전개됩니다. 그중 근본주의 계열에서 범보수, 정통주의를 지향하는 베빙턴이 말한 회심과 행동, 성경과 십자가 중심의 네 키워드를 꼽아 새롭게 나란 그룹을 신복음주의라 합니다.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분화하는 양태를 보면,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는 1942년 전후로 해서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새로운 복음주의(New-evangelical)는 60년대에 존 스토티처럼 현대 사회 문제에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강조합니다. 70년대에 이르러 젊은 복음주의(Young-evangelical)가 등장합니다. 60년대의 학생운동, 인권운동에 대해 말만하지 말고 실천하자 주장했죠. 로널드 사이더와 짐 윌리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후 존 스토티, 빌

리 그래함의 리더십에 의해서 남미 급진적 제자도 그룹을 포함한 범복음주의 사회참여 수용을 주창하여 로잔언약을 만듭니다. 로잔언약은 복음주의권 안에서 사회참여문제를 수용한다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렉 워렌이나 빌 하이벨스 등 같은 정서를 지니지만 교회성장에 힘쓴 실용적인 복음주의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로버트 웨버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차세대 복음주의(Younger-evangelical)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이 분류법을 따르면, 한국은 70~80년대 활동했던 복음주의를 ‘전통적 복음주의’로, 이후 80~90년대를 새로운(new) 혹은 젊은(young) ‘참여적 복음주의’로, 2000년대에 들어선 젊은, 포스트모던(younger) 복음주의를 차세대복음주의로 정리해봤습니다. 대략 숫자로 추정해봤을 때 베빙턴의 정의를 기준으로 회심여부, QT여부, 복음주의적 서적의 판매고 등을 근거로 전통적 복음주의를 500만에서 50만 명, 참여적 복음주의를 5만에서 1만 명, 차세대복음주의는 아직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맥락으로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기독교세계관운동은 복음주의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구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사회적 비판운동이나 학문연구가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진출한 이후일반 사회와의 맺는 관계 속에서 기능한다는 것이죠.

이 지점부터는 제 논문의 한 꼭지를 참고하겠습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잖습니까? 그 시점을 논의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80년대에는 우리 선배님들, 1세대가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면 2세대는 따라다니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또 가르쳤죠. 그런데 3세대가 문제제기 합니다. 왜 맨날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2002년 <복음과 상황>에서 장을 마련하였죠.

여기도 있는 양희송 대표(청어람)가 ‘개혁주의 세계관 논의를 독점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합니다. 원인은 개혁주의 그룹에 주류 기득권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러티브를 도입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것을 제시하죠. 여기에 대해 다른 차원으로 비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김기현 목사(부산 수정로침례교회)입니다. 이분은 침례교로 왜 개혁주의

변혁의 실패라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한국기독교의 변혁에 성공했는지 묻습니다. 개혁주의가 한국문화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고 이원론과 혼합주의 현상을 인정하는 ‘문화의 그리스도의 역설적 관계’를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에 1세대 분들이 반응 합니다. 송인규 교수는 기독교세계관 폐기론에는 반대하며 스스로 성찰하여 기

〈표1〉 기독교세계관 차세대의 문제제기 (출처: 이강일, 『한국개신교 복음주의운동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5.)

기세 차세대	비판	원인	대안	개혁주의에 대한 태도
양희송 대표 평신도	경직된 개혁주의 세계관 논의 독점	개혁주의그룹의 주류 기득권 의식	내러티브도입 다양성수용	초교파적인 혹은, 포스트모던적인 복음주의의 협력대상
김기현 목사 침례교	지성적, 이성적 개혁주의 특징 자체가 변혁의 장애물	세상과 혼합된 것이 중심문제	다양한 세계관 인정 구별된 교회공동체역할 강조	이원론 극복하고 사회참여 일깨운 개혁주의 공헌 인정
정정훈 평신도	중산층의 이해 대변하여 생산적 결과물 없음	관념론적 인식론 기능	비기독교세계와의 소통	개혁주의 세계관의 폐기 주장
이원석 평신도	이원론과 혼합주의 특징가진 한국 기독교의 문화 변혁 실패	개혁주의와 한국 유불무 혼합문화의 부조화	이원론과 혼합주의 현상 인정하는 ‘문화와 그리스도의 역설적 관계’ 설정	과거 한국교회의 탈정치화는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입장

가 그걸 독점하는지, 개혁주의 그룹은 세상문제를 이원론으로 보는데 사실은 혼합주의가 문제라고 제시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세계관을 인정하자고 주장합니다. 3세대에 속한 정정훈 평신도는 이를 계급적으로 이해하여 기존의 개혁주의 세계관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요. 개혁주의 세계관은 관념론적 인식론으로 기능하고 있으니 비기독교 세계와의 소통을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심지어는 개혁주의 세계관은 폐기돼야 된다고도 했죠. 요약하면, 양희송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김기현 목사가 침례교파의 다른 시선을 말했죠. 그리고 폴 킬리히를 전공하여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 이원석 평신도는 이원론과 혼합주의 특징을 가진 한국기독교의 문화

독교세계관 운동가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반성합니다. 이를 기독교세계관의 핵심개념의 이해 부족을 원인으로 꼽죠. 그래서 대안으로 아예 쉽게 가르치자,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2008, IVP)이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강조하며 온건하고 성경적 개혁주의의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이보다 좀 더 강한 논조로 말한 이승구 교수는 다양한 세계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러티브보다는 명제적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관의 관념론적 인식론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개혁주의에 철저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진단합니다. 바른 명제적 관점만이 바른 실천을 낳는다 대안을 제시하며 더 철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입장이

3세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긴 어려운 지점입니다. 최태연 교수는 온건하게 조화를 이루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개혁주의의 독점적 권위주의 경향을 인정하고 행동부족도 인정, 내러티브 없는 수용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1세대와 후속세대 사이 대화 단절과 공동연구 부재로 원인을 진단합니다. 대안으로 개혁주의에 대한 역사적 특징 이해를 요청하고 명제와 내러티브 상호보완을, 각자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제시합니다. 양승훈 교수는 세계관의 전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진한 기독교세계관 이론정립 이후 내러티브를 활용할 것을 제시합니다.

중재적 두 입장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주 평신도와 강영안 교수입니다. 강영안 교수는 기독교세계관은 교회사와 성경에서 유래하였기에 개혁주의가 독점할 수 없다 합니다. 3세대가 공감하는 지점이죠. 성

경의 진술은 명제가 아닌 고백으로서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도 합니다. 기독교는 일반세계와 소통할 연결점을 상실했기에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세상과 소통할 신앙언어를 세상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중언어학습이 필요함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김용주 형제는 선교단체 출신으로 직장연구소 소속인데요, 이원론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문제로 진단합니다. 현 상황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중첩되었으니 아직은 열매 맺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다 유보적 자세를 취합니다.

일명 ‘기독교세계관 논쟁’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좀 더 능동적으로 각 세대가 모여 포럼도 열고 했으면 좋았으려만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오늘날은 일종의 집단 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차세대 복음주의의 문제제기는 자연

<표2> 기독교세계관 1세대 반응 (출처: 이강일, 「한국개신교 복음주의운동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5.)

기세 1세대	비판	원인	대안	개혁주의에 대한 태도
송인규 교수 예정(합신)	기세 폐기론 같은 극단적 주장에 반대	* 기세운동가들의 삶의 변화부재 * 기세 핵심개념 (구조와 방향) 이해부족	* 기세의 성경적 근거를 중심으로 쉽게 교육, * 기세의 통전적 특징을 살려 이원론 극복	온건하고, 성경적 개혁주의 견지
이승구 교수 예정(합신)	* 다양한 세계관의 존재 인정 * 내러티브보다 명제적 진술의 중요성 강조 * 기세의 관념론적 인식론적 성격 부정	* 기존 기세 작업의 추상성 * 개혁주의 비철저성	바른 실천으로 이끄는 것 은 바른 명제적 관점	이미 정상에 선 개혁주의 세계관에 철저한 헌신
최태연 교수 예정(백석)	* 개혁주의의 독점적 권위 주의 경향 인정 * 변혁위한 실천전략과 행동부족 인정 * 내러티브 방법론 수용 필요성 등 인정	기세 일세대와 후속세대 사이 대화 단절과 공동연구 부재	* 개혁주의의 역사적 특징 이해 요청 * 명제와 내러티브 상호 보완 * 각자의 방법론으로 선의의 경쟁제안	신학적으로 유연하고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는 개혁주의 필요
양승훈 교수	기세의 전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필요성 인정	이론 정립의 미진	이론 정립 후 내러티브 활용	건강하고 성경적인 개혁주의 견지

〈표3〉 기독교세계관 중재적 입장(출처: 이강일, 「한국개신교 복음주의운동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5.)

중재적 입장	반응	원인	대안	개혁주의에 대한 태도
강영안 교수 예장(고신)	* 기세는 교회사와 성경에서 유래하므로 개혁주의가 독점할 수는 없다 * 성경의 진술은 명제가 아닌 고백으로서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기독교는 일반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점을 상실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소통해야 함으로 신앙언어를 세상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이 필요하다	개혁주의신앙을 고백한다
김용주 평신도	* 이원론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문제다 * 기세는 역사적 산물로 우리문화에 적응실패를 기세의 내부의 결함으로 보지않는다. * 내러티브와 명제적 진술은 보완가능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의 중첩적 사회문화 상황	기세가 열매 맺도록 아직 기다릴 필요 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분열을 염려하며 연합할 대상으로 인식

스러운 것으로 보고 쌍방향 소통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장이 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세대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같은 세대가 있어 배우려하고 들으려 하는 태도가 있지만 지금의 3세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만큼 변화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세계관논쟁은 차세대 복음주의라 규정했던 세대의 출현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어찌보면 개혁주의 신학적 권위구조를 깨고, 포스트모던적 신학 내지는 방법론의 도래를 알린다 봅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주일 연구원이 세계관동역회의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을 가지고 기독교성운동연구의 성과들이 현실적인 이슈에 응답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볼 수 없어 표제어, 논문의 제목만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논문들이 비판보다는 설명적이고 매해 언론사들이 선정하는 10대 이슈를 중심으로 봤을때 이슈대응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싫건 좋건 포스트모던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과거 저도 포스트모던을 이해하기를 인본

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 등으로 평가 가능한 객체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래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우리의 공기며 시대상입니다. 이미 차세대의 오장육부는 포스트모던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학습방법은 개별성입니다. 개개인의 독립된 개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갑니다. 이 소통 방법을 모른채 한 방향으로 개혁주의의 본질은 무엇인지, 세계관의 전통은 무엇인지 선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같이 늙어갈 수는 있지만 다음세대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반 학문세계에서 종래의 방법론은 이미 시효가 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긴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등한 주체로 보고 귀 기울일 때에 우리안의 진정한 지적 소통이 마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동역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문화 변혁 아닐까 생각합니다.

(2월호에 이어집니다.)